

정의로운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 정명기

*정명기님은 1974년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활동을 하며 대학원에 재학중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0년을 언도받았다. 1975년 출소 후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또 구속되어 1년 2개월간 복역했다. 이후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현재는 안산제일감리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1974년 4월 3일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민주화운동 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음모를 획책하였으나, 도리어 이것이 양날의 칼이 되어 독재권력이 붕괴되기 시작한 날로 기억하고 있다.

박정권은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된 지식인 및 학생들이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도록 인혁당 계열 인사들의 사주를 받은 운동으로 조작하였다.

그러나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서 평가할 때 민청학련사건이야말로 유신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여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반민주적이며 반민중적인 정권임을 폭로한 사건이었다.

필자가 민청학련사건으로 연행된 것은 1974년 4월 17일 새벽 5시 경, 집에서 서대문경찰서 정보과 형사 2명에 의해서이다. 처음에는 잠깐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여 동행을 요청, 서대문경찰서에 들어갔으나 그 때부터 1975년 2월 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10개월 동안 부자유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경찰서 신세를 진 경우가 있었는데, 1973년 4월 22일 남산에서 개최되었던 부활절연합예배에 참석하여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 때문에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25일간 구금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소위 남산부활절시위사건으로써 박형규 목사, 권호경 전도사 등이 구속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에 필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4년에 재학중이었고,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학생대표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1973년 4월 19일 학생혁명기념일에 기독교학생운동을 전개하던 KSCF(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와 가톨릭대학생회, 그리고 YWCA가 연합하여 「부활과 4월혁명」이라는 행사를 서울 YWCA 강당에서 진행하였는데, 이 행사를 잘 마치고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회장이었던 나상기 선배와 함께 당시 서울 변두리 빈민지역이었던 답십리에 살면서 도시빈민선교활동을 하던 선배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우연한 기회였지만, 그때 선배인 권호경, 김동완, 이규상 전도사 등은 4월 22일 부활절에 개최 예정인 연합예배 때에 살포할 유인물을 인쇄 제작하고 있었다. 줄지에 선배님들로부터 기독교학생회에 속한 학생 회원들이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기독교학생 회원들은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개최되기 전날인 21일, 중구 오장동에 소재한 여관에서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분담하고 준비하였으나, 정작 남산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여서는 준비해간 유인물을 제대로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내려오게 되었고, 이후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중 1973년 6월 말 경, 필자가 전도사로 새로 개척하여 예배드리는 교회(서울대학 입구가 종점이었던 성진상운 버스회사 안내양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보

안사 요원들이 뒤따라와 잠시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서 연행을 당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철거되어 없어졌지만, 서빙고동에 있는 보안사 분실이였다. 그리고 부활절연합예배 시에 유인물을 나누어준 것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미 그곳에는 박형규 목사, 권호경, 김동완, 나상기 선배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은 후 함께 연행되었던 학생들인 서창석, 황인성, 이상윤과 필자는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어 하루밤을 지내고, 이튿날 영등포에 있는 지방법원에 출두하여 약 식재판을 받게 되었다. 죄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2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구류처분을 받고 다시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와서 구류를 살게 되었다. 당시 남대문경찰서에는 현재 경기도 도지사인 손학규 선배도 다른 사건으로 연루되어 함께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7월 하순 경 25일간의 유치장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조사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약 한 달간 갇혀 지낸지라 밖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석방되어 지나간 신문들을 보고 내란예비음모사건으로 박형규 목사, 권호경 전도사 등이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철 유치장에서 단단히 콩밥을 먹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석방됐을 때 각 대학교는 여름방학 중이었고, 필자가 소속된 KSCF는 전국의 3개 지역에서 여름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으므로, 부산에서 열린 영남대회에 참석하여 남산 부활절예배사건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박형규 목사와 권호경 전도사의 구속사건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 근처 정동제일교회 켈센기념관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가 훗날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리게 된 구속자들을 위한 목요기도회의 전신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해 8월에 일본에 체류중이던 김대중 선생의 납치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한·일관계를 비롯하여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곧 9월이 되었고, 대학기는 유신헌법이 선포된 후(1972년 10월 26일) 유신헌법 철폐 및 민주화운동의 기운이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를 중심으로 유신철폐 및 박정희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모가 감행되었다. 이 학생 데모는 당시 박형규 목사가 담임으로 있었던 서울 제일장로교회(기독교장로회)의 대학생회 회원이며 기독교학생회 회원들이었던 나병식, 강영원, 정문화, 황인성, 새문안교회 대학생회 회원이었던 신대균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이 데모는 고요 가운데 울린 총성과도 같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학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이를 통하여 학생운

동과 기독교학생운동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의 회원들은 시위로 구속된 동지들의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구속 학생의 부모들을 만나 위로하는 일과, 학생들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 영치물을 보내는 등 옥바라지를 하였다. 또한 각 대학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전개하는 일 등이 대책위원회 활동의 주요 내용이었다.

드디어 12월 7일, 정부는 국민 여론에 몰려 구속 학생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일시적으로 승리감에 취할 수 있었다.

대학은 곧 겨울방학에 들어갔는데, 기독교학생회연맹을 비롯한 각 대학 학생들은 전국 동계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12월 24일, 재야의 함석헌, 장준하, 백기완 선생 등 30여 명이 중심이 돼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 발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때마침 12월 26~29일 동계대회에 참석차 광주 시내에 소재한 가톨릭피정센터에 모이게 된 KSCF 회원 일동은 민주화를 촉구하는 기독교학생선언문을 채택하고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1974년 1월 8일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긴급조치 1호를 선포함으로써 이후 지나간 긴급조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관련, 장준하, 백기완 선생의 구속을

시작으로 목사 등 성직자, 문인, 학생들이 줄줄이 투옥되었다.

학원과 교회 등이 어수선한 가운데 74년 2월 나는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3월 감리교신학대학원에 입학함과 동시에 구로공단 근처에 위치한 경수산업선교회 소속 기독교대한감리회 갈보리교회 전도사로 산업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원 재학과 함께 전도사로 목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74년 3월 개학과 함께 대학가는 유신헌법 철폐 데모로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3월 어느 날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회원이며 서울제일교회의 청년부 회원인 김경남(당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한신대학원에 재학중)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다.

나는 김경남 선배로부터 최근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4월 3일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가 준비되고 있는데, 나의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에서도 이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듣게 되었다.

나는 대학원에 재학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시위를 주도하기가 어려운 형편인지라 후배 이상윤(당시 감신대 4년 재학중)에게 4월 3일의 거사에 감신대도 함께 참여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상윤은 계획대로 4월 3일 감신대신학대학 채플시간(오전 11시)에 미리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긴급조치 1호로 비상보통군법회에서 재판을 받은 성직자들 및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교내시위를 시도하였으나, 교수들의 제지로 시위로 확대하지

못한 채 불발에 그치게 되었다.

이 시위사건이 있던 날 오후에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었다. 4호 선포에 직면한 교수들은 4·3 감신대 시위기도사건을 없었던 일로 마무리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숨길 수 없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다.

감리교신학대학에서는 당시 토요일마다 서울 시내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예배에 참석했던 한 고등학생(배재고등학교 재학중)이 감리교신학대학 채플 의자에 떨어져 있던 성명서를 주워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감신대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이상윤은 서대문경찰서 형사대에 의해 연행을 당한 후 보안사에 이첩되어 여러날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윤의 자백으로 나도 서대문 정보과 형사에 의해 4월 17일 새벽 5시 경 흑석동 집에서 연행되어간 것이다.

4월 17일 경에는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연행되었고 자발적으로 자수한 경우도 있어서, 이후 사건 전보가 발표될 즈음에는 조사 인원이 총 1천 24명이나 되었고, 구속 기소된 사람도 203명이나 되었다. 나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의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되었고, 김형기, 최민화, 윤관덕, 김경남, 구창완, 이원희, 장영달, 신대균, 이재웅 등 10명과 함께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이르렀다.

후에 보안사에 이첩되어 조사받던 중 동년 2월 13일 성공회 신학원에서 모인 교회청년연합회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발표한 내



▲ 감리교신학대학교 전경

용이 문제가 된 것을 알았다.

그 내용은 1973년의 교회와 사회 상황을 분석하고, 1974년 기독교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려던 것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화냐 복음화냐?’ 를 논하고, 기독교학생운동의 역사참여를 강조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공소사실에 현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고 기도하고 선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비교적 늦게 연행되었고, 조직상으로도 하위에 속하였기 때문에 다른 동료 학생들(예 최민화의 경우)이 받았던 정도의 고문을 심하게 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밀폐된 공간에 여러날 갇힌 상태에서 욕설과 모욕을 들으며, 때로는 구타를 당하면서 “공산주의자에게 선동을 받아서 현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고 했다”는 등의 혐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태도로 구타를 일삼았다.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분노하게 된다. 도저히 잊혀지지 않으며 밤중에 꿈을 꾸기도 한다. 여러 날 동안 시달림을 받은 후에 4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바로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었다.(4월 26일 경)

서대문구치소에서의 생활은 경찰서와 보안사에서 조사받을 때와 비교하면 지옥과 천국의 차이처럼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 비록 수인번호 102번을 달고 푸른 수의를 입은 모양이었지만, 일반 수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 하여도 살 것만 같았다.

비슷한 시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구속 수감되었기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는 서로 바라다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한편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외부와의 단절, 특히 가족들과의 일체 면회가 금지된 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7월 8~10일 사이에 군검찰에 출두하여 취조를 받았는데, 담당 검찰관의 표정에서 확신이 없고 피로워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석방되어 안 사실이지만, 1974년 5월 27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전모가 발표되었고, 중앙정보부가 조작하여 발표한 민청학련 조직체계를 본 친지들은 정말 공산당으로부터 사주받은 것으로 생각하고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웃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는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8월 2일에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아보게 되었고, 곧이어 7일

에는 제 1차 공판이 열렸고, 9일에는 구형 12년을, 10일에는 언도 10년을, 18일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가 있으면 항소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제1심 군사재판은 국선 변호인조차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획일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자동성의 시대일까? 조지 오웰의 「1984년」이란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군사법정은 정의와 자유와 진리의 전당이 아니라 밀폐된, 그리고 권력의 비호 아래 정치적인 연극이 상연되는 극장과 같았다. 그때 피고인석에서 있던 필자의 심정은 한 편의 희극을 보고 있는 관중의 입장이었다. 8월 10일, 10년 언도를 받고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필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모든 행위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근거로 한 행동이므로 후회하지 않겠다.”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 심판부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973. 4. 22 상피고인 서창석 공소의 황인성 등과 공모하여 남산야외음악당 부활절 예배시 ‘위정자는 회개하라. 자유민주주의 환원하라’는 등의 유인물 100여 매를 살포하고, 제일교회 박형규 목사, 동 김동완 전도사, 동 권호경 전도사 등이 유신헌법을 부정하고 개헌청원운동을 하여 개헌한다고 주장함에 감화되어 1973. 12. 26부터 12. 29까지 전남 광주시내 피정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동계대회에 참석하여 유신헌법 반대, 일본 경제 예측화 반대 등을 찬동하고, 동소에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찬동 서명을 하는 등 개헌운동에 적극 찬동하였다.”

8월 18일 항소를 제기한 후 45일만에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열렸다. 제2차 재판은 제1심 때보다 분위기가 달랐다. 제1심 때에는 변호사 선임 절차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2심 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변호사(한승헌 변호사)를 선정하여 변호해 주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제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7년의 언도를 받았다. 변론이 끝나고 최후진술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독교 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영어의 몸으로 있는 동안 자유와 정의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10월 10일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갔다. 84명이 두 대의 호송차에 분승하여 안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창 밖을 통해서 보이는 시가지와 가로수 길은 가을을 알려주는 듯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지들과 애국가와 인권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신철폐 및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안양을 향하여 떠나갔다. 정든 서울구치소를 뒤에 남기고 언제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우리가 또다시 자유를 향하여 쇠사슬을 끊으려고 일어설 때 이 구치소는 나의 고향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안양교도소에서는 4동상 1방 독방에 수감되었다. 조그마한 방에 혼자 앉아서 성서를 연구하고 책을 읽으며, 사색을 심화시키며 명상과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죄수 변호 이외

에는 아무 것도 없는 인간이 되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102번으로 통하였고, 이곳 안양교도소에서는 1681번을 달았다.

처음 서울에 수감된 후 몇 달 동안은 지루하고 권태로운 날을 보냈으나 여기서는 평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희망을 현재화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서울에 있을 때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왔던 〈새마을노래〉(새벽종이 울렸네/좋아졌네 좋아졌어/몰라보게 좋아졌어 등)가 들리지 않아서 한결 기분이 좋았다.

안양에서 며칠이 경과한 후 우리들은 상고 포기할 것을 결단하였다. 형식적이며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아서 무엇하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70여 명이 10월 17, 18일 양일에 상고 포기를 하였다.

우리는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이틀 동안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었고, 안양에서도 단식농성을 하였다.

11월 3일은 주일이었다. 기상하자마자 오늘 이감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서로 헤어지는 이별의 정을 달래면서 전국 교도소로 분산 수용되었다. 영등포교도소로 7명이 이감되었다. 이미 영등포교도소에는 박형규 목사님과 시인 김지하, 백기완 선생 등 8명이 형이 확정되어 출역을 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먼저 수감된 곳은 미지정방으로서, 확정된 재소자가 출역하기 전에 수용되는 곳으로 환경이 나쁘고 대우가 제일 좋지 않은 곳이었다. 12월 10일까지 이곳에 있었고, 10일 이후 출감일인 1975년

2월 15일까지 ‘조화공장’ (조화를 만드는 공장)에 감방이 지정되어 수감생활을 하였다. 필자의 만기 출소일은 1981년 5월 9일이었다. 그날까지 비겁해지지 말고 보람된 생활을 하리라 다짐하였다.

조화공장은 기결수 중에서도 누범자 또는 전과가 많은 재소자가 수용되는 곳이다. 그들의 고통과 생활을 함께 체험하면서 나 자신의 생을 반추할 수 있었다.

필자는 1968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 신장염으로 휴학을 하고 산에서 6개월간 투병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10개월간의 수감생활중 항상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결정하시며,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K. Barth)

하나님의 역사적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인 성육신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에 복종할 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을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복종과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 있는 인간의 삶과 교회공동체와 인간사회 속에 개입하심으로써 각 개인의 삶과 교회공동체와 인간사회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가 간혀 있는 동안 감옥 밖에서는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구속자들을 석방하라는 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75년 새해가 되었을 때 박정권은 2월 15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공포했다. 한편, 재야에서는 이 날을 국민투표 거부 날로 규정하여 투표 거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박정권은 국민투표가 끝난 사흘 후인 2월 15일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자 중에서 인혁당사건 관련자와 반공법 위반자를 제외한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였다. 이때 나 역시 148명의 동지들과 함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출감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때에 함께 석방되지 못한 동지들이 있었으므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다.

상고 포기를 한 후 영등포교도소에 와서 수감생활을 할 때까지는 면회를 한번도 할 수 없었다. 1974년 12월 경 처음으로 가족들과의 면회를 할 수 있었는데, 석방될 때까지 2~3번 정도 면회를 한 것으로 기억된다.

석방되었을 때는 기결수로 갑작스럽게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기 때문에 머리를 박박 깎은 상태였었다. 그리하여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은 밖에 나왔으면서도 감옥에서 금방 나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우리와 함께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동지 가운데 석방에서 제외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국내외 여론에 밀려서 석방했지만 오히려 기름에 불을 끼얹은듯 민주화를 요구하는 데모는 계속되었다. 석방되자 곧 2월 21일 기독교회관에 석방자들이 모여 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를 결성하는데 함께 참여하였다.

석방이 되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방침이 석방된 학생들을 복교시킬 수 없다고 못박았으므로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구속되기 전에 목회활동을 했던 갈보리교회에는 후임 교역자가 부임한 상태라서 나는 실직자 신세가 되

었다. 자연스럽게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였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석방되지 못한 인혁당 관련자중 8명의 사형이 확정되었고, 하루 뒤인 4월 9일 새벽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때문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이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희생된 인혁당 관련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석방된 후 나는 『씨알의 소리』 1975년 3월호에 「역사의 불연속성-시간의 정지」라는 제목의 감옥생활을 회고하는 수기를 썼다.

석방된 이후에도 우리의 정치현실은 개선되기는커녕, 긴급조치 7호, 9호 등의 선포로 더욱 강경한 조치들이 취하여짐으로써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는 더욱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었다.

언제든지 이 땅에 감옥이 존재해 있는 한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의 쇠사슬이 아픔을 준다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 다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목회자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내가 1975년 2월 15일 석방되기까지 수감생활을 했던 영등포 교도소에서 불렀던 노래 가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노래는 함께 감옥생활을 하던 김지하 시인이 작사한 것을 박형규 목사님이 찬

송가 425장에 맞추어 부르도록 했던 〈묶인 손들의 기도〉이다.

1. 너무도 오래오래 사슬에 묶인 손들
너무도 긴세월을 애월에 묶인 손들
아무도 뜨거웁게 안아보지 못하였네
아무도 다정하게 잡아보지 못하였네
〈후렴〉 오 주여 오셔서 쇠사슬 끊으소서
무거운 이 쇠사슬 어서 풀어 주소서
2. 죽음에 그늘진 곳 절망의 골짜기에
꿈에도 묶여 있는 피맺힌 설운 가슴
정의에 목마르고 사랑에 굶주렸네
해골의 골짜기를 죽도록 헤매었네
3. 바람찬 벌판 위에 한줌에 씨를 뿌려
피터진 이 손으로 가꾸고 거둬들여
땀으로 영근 이삭 당신께 바치리라
4. 어여쁜 저녁노을 초원에 붉게 탈 때
흙문은 이 손으로 벼들을 맞아들여
촛불을 밝혀놓고 당신뜻 배우리다
몸바쳐 어둠쫓는 불꽃이 되오리다
5. 거치른 노동으로 육신은 타고 찢겨
죽어도 이 손으로 자유를 찾으리다
찬란한 아침이여 꽃들의 외침이여
이윽고 어둠 가고 동트는 아침이여

